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 연구논문

사물의 변형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학과

박 정 화

사물의 변형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학과

박 정 화

인 준 서

박정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써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전개과정에 있어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과 그 제작과정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본인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은 합리적 사고의 부산물로써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고 인간을 고정된 틀에 가둬버린다. 이런 틀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유로운 상상작용을 통하여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업은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일상사물을 결합하거나 변형시켜 애매한 형태로 표현한다. 변형된 사물은 무의식과 꿈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은 현실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상상이나 몽상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형된 사물에 파일커팅지를 씌움으로써 사물에 장식적 효과를 주어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장식성으로 인하여 사물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런 사물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물들로 우리의 일상 관념으로는 불필요하고 폐기되어야 할 물건이지만, 그 사물 속에는 신비와 꿈이 담겨져 있어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느끼게 한다.

본인 작품은 설치됨으로써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의 평면회화나 조각처럼 작품을 걸거나 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전시 공간 및 공공장소 등의 여러 여건에 맞추는 현장위주의 작업으로써 상황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된다. 또 이러한 설치형식의 전개는 예술을 일상생활 속에 끌어들이고 작품이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감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관객에게 새로운 소통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 작업 활동의 기본 배경인 상상력과 그 상상력에 의해 고정관념이 작업을 통하여 파괴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초현실적 오브제와 POP ART의 표현적 방법이 본인의 변형된 작품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고,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을 통한 정신적 치료법과 본인 작품에 사용된 파일커팅지가 불러일으키는 심상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인은 이들을 통해 본인 작품의 내용적 측면을 알아보고, 사물의 변형 과정과 그 표현적 방법으로서 다양한 설치방법의 조형적 측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업 내용	3
1) 상상력의 작용을 통한 일상적 사물의 변형	3
2) 현실과 비현실이 혼합된 공간	5
3) 파일커팅지가 불러일으키는 심상	9
2. 조형적 요소	11
1) 변형과 재료	11
2) Installation	12
3. 작품분석	15
III. 결론	29

참고 도판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What is it, 80×100×15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 19
- 【작품2】 What is it, 35×26×3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20
- 【작품3】 What is it, 85×39×13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21
- 【작품4】 What is it, 100×60×7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The chair, 45×45×10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22
- 【작품5】 The tap, 17×21×3.5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5 23
- 【작품6】 The bathtub, 130×50×8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24
- 【작품7】 What is it, 200×130×5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 25
- 【작품8】 The kettle, 35×26×3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26
- 【작품9】 The cup and the spoon, 12×9.5×12cm, 16×3.6×1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5 27
- 【작품10】 변기, 욕조, 수도꼭지, 화분, 샤워기 변형물이 설치된 공간 ... 28
- 【작품11】 식탁과 의자, 주전자, 컵의 변형물이 설치된 공간 28

도 판 목 차

【도판1】 메레 오펜하임, <모피로된 찻잔>, 인조보피, 혼합매체, 1936

【도판2】 살바도르 달리, <바닷가재 전화기>,
플라스틱과 채색된 플라스터, 혼합매체, 17.8×33×17.8cm, 1936

【도판3】 커트 셀리그만, <특별한 가구>, 1938

【도판4】 클래스 올덴버그, <‘유령’ 드럼세트>, 비닐, 케이폭 슴, 형겔,
1972

【도판5】 클래스 올덴버그, <침실>, 혼합매체, 가변크기, 1963

【도판6】 야요이 쿠사마, <Polka Dots>, 혼합매체, 가변크기, 2003

I. 서론

합리화의 가장 빛나는 실현인 과학·공업·기술의 발전은 인간 해방과 유토피아적 사회건설을 향한 인간 중심의 사회를 실현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대량생산의 경제체제는 새로운 시장 경제의 논리를 창출하여 인간의 취미·성향까지도 조절하며 인간 본연의 필요나, 인간의 정신성 추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양식을 강요하게 된다. 합리적 운영만을 지상목표로 삼는 인간 삶의 세계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삶의 정신적 위기에서의 본인은 상상력을 통해 사고방식의 획일화에서 벗어나고, 사물의 일상적 의미를 다르게 변형시켜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사물이 놓인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목적과 전혀 다른 장소에 배치시켜 놓음으로써 새로운 사물의 의미와 함께 인간의 관념적 사고에 심리적 충격과 당혹감을 일으켜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한다. 따라서 본인의 작업은 원래의 기능과 무관한 사물들을 결합하고, 사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변형을 시켜 합리화가 만들어 놓은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그 사물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인 작품 제작에서 갖게 된 생각이나 의도 그리고 조형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본문 제1장에서는 작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상상력의 작용과 그 상상력을 통하여 변형된 사물을 초현실적 오브제와 POP ART를 통하여 비교, 연구하고, 변형된 사물에 씌워진 과일컷팅지가 불러일으키는 심상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의 표현된 조형적 측면과 작품이 설치 되어졌을 때 완성된 결과를 논하고, 관객에게 소통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을 보여주며, 또 여러 상황에 따라 새로운 공간이

창조되는 것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사물 변형의 동기가 되는 심리적 전이묘사와 변형된 형태의 조형적 측면을 서술하여 각 작품을 분석하고 사진과 함께 제시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한다.

II. 본 론

1. 작업 내용

1) 상상작용을 통한 생활사물의 변형

상상의 세계는 순수하고 아름답다. 본인에게 상상은 자유로운 삶을 제공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이다. 또 상상력은 예술을 창조하는 근원적 능력으로서 사물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상상력은 본래 현존질서를 유일한 리얼리티로 받아들이기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동시에 현존질서를 넘어서는 자유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이미지들을 부단히 불러일으킨다.”¹⁾ 이와 같이 상상력은 합리적 의식 활동에 대비되며 유희적이며 고정된 우리 인식의 폭을 넓게 한다. 상상력은 우리의 체험을 일반화 시키거나 해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데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상상력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유용한다면 우리는 삶의 다양한 층위를 보다 깊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상력은 ‘현실’이 사전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현실을 그때그때 만들어 내는 것이다. 화가의 눈에 의해 발견해낸 현실은, 그의 작품에 정착하고 그와 동일한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한 그곳에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 현실은 그 화가의 눈에 앞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과 다른 눈에 의해 발견해낸 현실과 동일한 현실도 아닌 것이다.

또 이성이 인간을 보편적인 진리에 따르게 하고 감정 역시 한 개인을 일

1) S.K Langer, 예술이란 무엇인가, 박용숙 역, 문예출판사, 1984, p.23

반적인 생리의 법칙으로 해소해 버리는 것에 대해, 상상력은 인간의 개별적인 존재와 깊게 결부되어 있다.²⁾ 상상력에 방향을 부여하고 이끄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술가 밖에 없고, 그것이 확실히 무엇인가를 표현했다고 보증하는 것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술가의 개성이라는 것은, 상상력에 있어서는 그것에 선행해서 미리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느끼고 무언가는 상상하는 주체가 예술가의 개성이라 한다면, 그 무언가를 최초로 발견하는 것이 그때그때의 상상력이기 때문이다. 예술가의 표현이란 그의 자기 인식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 자신이 행하는 자기창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는 상상력에 의해 그때그때 자신을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만든 자신이 되는 것이고, 무의식중에 자신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상력은 정지한 순간 그의 존재는 소실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는 끊임없이 격심한 긴장 속에서 작업을 강요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상상 속에 살고 있는 예술가는 한 사람의 자신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신과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보들레르는 예술가란 상상력을 통해 세계를 해체시키는 존재라고 말한 바있다. 이러한 해체를 보들레르는 이상화라고 불렀다. 보들레르를 포함하여 많은 예술가들에 있어서 이상화란 현실의 해체, 비현실화이다.³⁾ 본인은 이러한 상상 작용을 통하여 사물을 변형시키거나 사물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일반적인 체험을 해체시키고 거기서 해방의 쾌감을 맛보게 된다. 자유로운 상상을 통한 사물의 변형은 고정관념을 파괴하며 인식변화를 가져다준다. 본인에게 그 인식의 변화는 특정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의 변화와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2) 콘래드 피들러·야마자키, 예술 활동의 근원, 이병용 역, 현대미술사, 1997, pp.43-44

3) K. 헤리스, 현대미술- 그 철학의 의미-, 최연희, 오병남 역, 서광사, 1977, p.105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기는 화장실에 위치하며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용변기구이다. 하지만 인식의 변화에 의하여 변기는 일상적인 방에 위치할 수 있으며 변기가 세면도구도 될 수 있고 거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무관한 사물들이 결합되거나 이해 불가능한 관계를 제시할 때 우리는 세계내의 유일한 상황으로부터 해방되어 상상력의 무한한 유희에 참여할 만큼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상상을 하지 않는다. 현실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만이 몽상을 쫓는다.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상상력을 움직이는 힘이고, 상상의 세계는 욕망의 충족이며 동시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보정이다. 따라서 본인은 생활사물의 변형과 해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은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고 일상생활 속의 지루함을 다소 유희적으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느낌을 유발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인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새롭고 신선함을 불러일으키고, 삶속에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상상력은 예술 활동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현실과 비현실이 혼합된 공간

본인의 작업에서 상상력을 통해 변형된 사물은 현실에서 체험해 보지 못한 사물의 재현이다. 하지만 그 비현실적 사물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현실과 비현실이 혼합된 환상적 공간을 연출한다. 환상의 세계는 작가의 체험과 지식 그리고 감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체험이나 지식에 의하지 않은 독자적인 상상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인이 추구하는 환상의 세계란 결과적으로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지만,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작가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어, 현실

생활에서 본인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물에 반영된다. 무의식의 세계를 표방한 대표적인 이즘은 초현실주의이다.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내면에 방대한 욕망의 바다-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성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그 욕망을 억압하고, 편협한 세계의 틀에 가두고 있다. 그러므로 초현실주의는 그 억압된 욕망에서 해방되기 위해 잠재된 무의식을 상상과 몽상을 통해 끄집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완전한 의식의 자유가 보장된다.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초월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에 솔직하였으며, 억압된 사회와 이러한 사회를 반영하는 무기력하고 불만에 찬 문명에 대하여 불기하며, 인간의 완전한 해방을 표방한다.

초현실주의는 연관성 없는 오브제들을 접근시켜 생겨나는 효과를 기본으로 한다. 모홀리나기의 저서에 따르면 이것은 “해부대 위에서 재봉틀과 우산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름답다.”는 로트레 아몽(Lautre' Amont)의 유명한 말에서 영향을 받은바가 크다. “초현실적 오브제는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난 사물을 그대로 보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 사물 본래의 관습적인 테두리로부터 벗어나 그 사물에 부여되었던 본래의 용도와 다르거나 또는 전혀 알 수 없는 듯한 새로운 용도로 쓰이는 사물이다. 따라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것 외에 어떠한 목적도 갖지 않고 무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오브제, 따라서 무의식과 꿈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오브제가 바로 초현실주의적 오브제이다”⁴⁾라고 정의한다.

초현실적 오브제에는 메레 오펜하임(Meret Oppenheim)이 만든 <모피로 된 찻잔>(도판1)이나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바닷가재 전화기>(도판2), 셀리그만(Seligmann)의 <특별한 가구>(도판3)등이 있다. 메레 오

4) 모홀리나기, 초현실주의 역사, 민희식 역, 고려원, 1985, p.188

펜하임이 1936년에 제작한 <모피로 덮인 찻잔>(도판1)은 두 개의 이질적인 실체들을 결합시켜 작품의 환상의 시간 속에 둘러싸이게 한다. 이 같은 작품은 그 표면 위에 관람자가 자신의 연상 작용을 투사하여 얻게 되는 확장된 경험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⁵⁾ 작품이 보여주는 은유적 결합의 상태는 관람자에게 무의식적 심상을 끌어내고, 관람자에게 이전에는 몰랐던 내면의 환상적 이야기를 의식하게 한다.

살바도르 달리가 1936년에 제작한 <바닷가재 전화기>(도판2)는 사물에 대한 신뢰 불가능성을 이용하고 있다. 전화기와 바닷가재 사이의 어떤 유사점을 찾아보면, 그것들은 둘 다 같은 모양이고 비슷한 감촉을 지녔으며 울릴 때(혹은 요리될 때)마다 ‘뽁’ 소리를 낸다. 달리는 이러한 유사점에 주목하면서 전화 수화기를 바닷가재로 대체했다. 그렇게 생겨난 오브제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명 없는 전화기의 무해함을 당연시하는 우리 자신이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⁶⁾

초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무용한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상의 관념으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폐기되어 있는 물체 속에도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큰 가치가 숨겨져 있다. 그것들을 일깨워 경련을 일으키고 섬광처럼 번쩍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것들이 창안되었던 것이다. 초현실적 오브제가 조립품이건 습득물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오브제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즉 외부 세계의 어떤 것이 개인의 감수성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고, 주관성은 객관적인 현실성에 혼합된다.⁷⁾ 그러므로 초현실적 오브제들은 무의식 속에 접혀있는 부분의 ‘괴이하고, 마법적인 미’를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5)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 조각의 흐름, 윤난지 역, 도서출판 예경, 1997, p.150

6) 피오나 브래들리, 초현실주의, 김금미 역, 현대미술운동총서, 2003, p.44

7) 신현숙, 초현실주의: 예술 각 분야에 나타난 모험정신과 그 한국적 수용, 서울:동아출판사, 1992, pp.120-123

지금까지 미술사적 측면에서 나타난 초현실주의 오브제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았고, 또한 이와는 다른 형식을 표현한 POP ART의 현존 조각가 클라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다. 팝아트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상의 이미지나 물체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예술에 끌어들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올덴버그 역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사물을 이용하여 사물을 거대하게 만들거나 혹은 딱딱한 사물을 부드러운 재료로 만들어 낯익은 물체를 낯설게 하여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주변 사물에 새로운 의식을 가져다주는 전치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초현실주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의 작품들 중 <부드러운 배수관-푸른색(차가운)>, <‘유령’ 드럼세트>(도판4), <아이스 크림-부드러운 모피의 익살들>은 ‘자신의 환상에 구체적인 진술을 부여하기’위해 환상을 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각을 촉각으로 변형시킨 것이다.⁸⁾ 그리고 인공적인 화려함을 지닌 작품 <침실>(도판5)은 원근법에 따라 제작된 가구들이 흰 비닐의 침대시트, 직물, 인조표범가죽으로 신비롭게 장식되었기 때문에 꿈속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본인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물을 변형시키는 유형에는 사물의 기능만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과 기능이 무관한 두 사물을 혼합하여 애매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한 사물이 당연히 해야 할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물의 본래 속성이 치환될 때 우리는 황당함과 동시에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 답은 관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한 사물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라 그 사물로 인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더 중요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물의 형태가 인간의 편리에 의해 관습적인 고정된 틀

8) 루시 R. 리파드, 팝아트, 전경희 역, 미진사, 1985, pp.135-136

에 맞춰 생산되고, 표면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부드럽게 제한적으로 제작된다. 이런 제한들이 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작용에도 작용하여 인간의 행동에도 제약을 가하여 자신도 모르게 사회의 억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꿈과 환상이 표현된 사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세계에선 이런 제약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본인은 사물의 형태가 변형됨으로써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한 편협한 세계질서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사물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와 욕망의 억압에서 해방의 쾌감을 맛보게 된다.

3) 파일컷팅지가 불러일으키는 심상

파일컷팅지를 변형된 사물에 붙이는 것은, 본인에게 일상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과 빛만이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 파일컷팅지를 변형되거나 일반사물에 붙이는 것은 장식적 효과를 주게 되며, 그 장식성은 사물을 즐겁게 만드는 기능과 관람객을 즐겁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장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일컷팅지는 음영 현상을 통해 장식의 본래의 용량이 배가된다.

“장식적이란 말은 과거에는 회화작품을 비판하는 뜻으로 흔히 쓰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함부로 쓰이지는 않는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전시되었을 때, 지나치게 장식적이란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 재고의 여지를 느끼고 있다. 장식성은 마티스에 있어서도 기존의 개념과 태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예술가들도 그러하였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⁹⁾

또한 파일커팅지에는 긴 털이 달려 그 천을 사물에 붙이는 것은 사물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건축물이나, 의복, 가구, 도구 그리고 단순한 물건까지 장식을 너무 지나치고 복잡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물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¹⁰⁾ 기능이 상실한 사물의 재현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현실적인 황홀한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본인에게 이런 초현실적인 공간은 현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안식처로써 심리적 치유를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인간은 의식의 영향 아래 있는 현실세계에서 고통을 직면하게 될 때 자가 치유 욕구에 의해 자신만의 행위나 도구를 사용하여 현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이 그러한 예인데,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Polka Dots>(도판6)은 편집적 강박증과 그에 따른 환각 증세에 대해 그 자신이 나름대로 개발한 치료법이다. 동일한 요소나 문양을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히 기계적으로 반복, 직접, 증식, 확산시켜 자신의 편집증을 그대로 작업 방법으로 연결하고 있는 그의 예술은 그것이 어떤 형식이나 표현양태를 취하든 간에 일종의 치료법이며 그의 정신질환적인 편집과 환각 증세에서 그를 해방시킨 유일한 수단이며 카타르시스였다는 것이다.¹¹⁾

본인은 파일커팅지를 변형된 사물에 씌우고 그 사물들이 공간에 배치될 때 황홀경을 느끼며,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본인은 치유에 대한 욕구가 이런 작업 활동을 유발하며 파일커팅지의 현란함은 작업의 출발점으로써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파일커팅지를 사물에 씌우는 행위는 본인에게 필연적인 행위로 정신적인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치료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9) Clment Greenberg, Influence of Matisse, Art International (Nov, 1973), p.28

10) 김경중, 사인, 심볼, 문양, 미진사, 1985, p.66

11) 송미숙, 폴카점으로 뒤덮인 무한 황홀경, 월간미술, 2003, 3월호

2. 조형적 요소

1) 변형과 재료

각각의 사물들은 고유의 기능에 걸맞은 형태를 갖는다. 그 사물들 각각의 이미지는 그 사물의 형태와 기능을 오랜 시간 동안 접하면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것이기에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보편적 인식이며 본인이 작품을 변형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기도 한다. 변형은 사물의 본래기능을 상실시키거나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사물로 전이되는 것을 보여준다. 일상적 사물 욕조, 변기, 수도꼭지, 거울, 슬리퍼, 거울, 식탁, 의자, 컵, 숟가락, 주전자, 다리미 같은 우리 주변의 낯익은 물건들이 일상적인 기능과 의미가 변형되어 또 다른 현실로 재인식된다.

사물을 변형시키는 방법으로는 <작품1>, <작품2>, <작품3>, <작품4>와 같이 기능이 무관한 두 사물을 결합시키는 것과 <작품5>, <작품6>, <작품7>, <작품8>, <작품9>와 같이 기존 사물을 사용할 수 없게 단순히 실용적인 기능 부분만 변형시키는 두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스티로폼으로 깎아서 파일커팅지로로 썬다. 스티로폼의 속성은 단단하지 않아 변형된 사물을 깎기에 쉽다. 스티로폼은 일회성의 재료이지만 파일커팅지로 뒤덮여지면, 본인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준다. 스티로폼이 파일커팅지에 씌워짐으로 스티로폼은 숨겨진다. 이것은 속은 부실하지만 포장만 과대하게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과대 포장하더라도 속이 빈 느낌은 피할 수 없다.

파일커팅지는 100%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빛을 받으면 음영효과가 커져 우리가 여태껏 현실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하며, 천에 달린 털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흔들려 마치 사물이 살아 움

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또 움직이는 털은 시각적인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까칠까칠한 촉감을 가지고 있어 관람자로 하여금 만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시각과 촉감이 결합한 공감각적인 사물은 초현실의 세계를 표방하며 같은 재료로 변형된 사물 혹은 기존 사물에 붙이는 것은 공간에 통일감을 주게 된다.

<작품1>, <작품7>, <작품4>에 사용된 거울은 주위 사물을 비추어 반짝이는 천의 시각적 효과를 더욱 부각시킨다. 또 거울은 모든 공간을 포용하며 나아가 공간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공간을 창조한다. 관객은 거울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게 되고 관객 자신도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파일컷팅지와 거울은 시간성을 내포하여 조각의 3차원을 4차원으로 바꿔 놓는다. 움직임이라는 요소가 부여된 작품 앞에서 관람자는 이미 수동적이거나 수용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가자가 되는 것이다.

2) Installation

공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체와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과의 상호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인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 그 자체와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은 조형의 형성과 정신이 일치되는 장소이며, 공간의 본질, 그것을 규정짓는 모든 요소의 상호 작용에 의해 성립된다.¹²⁾ 그러므로 설치 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특성의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격의 독창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설치미술에서 그 조형을 형성해가는 근본적 요소는 공간

12) 위성웅, 설치미술에 있어서 공간과 오브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p14.

이며 현실과 공간의 만남이 설치미술의 가장 중요한 표현 매체가 된다.

설치미술의 공간에 대한 욕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3차원의 입체물로써 만족하는 차원을 떠나 새로운 공간의 창조를 요구하게 되었다. 설치미술은 모든 구성요소가 이동 가능하기 위하여 일정한 틀을 갖지 않고 현실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설치되는 과정 속에서 공간을 형성해 간다.¹³⁾ 이러한 사물의 공간배치는 보다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술가는 작품과 관객과의 소통적 차원에서 작품을 배치하며 자신이 의도한 효과를 계획된 전시 방법에 의해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설치미술에 있어 그 조형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장소를 포함한 공간으로서 형식, 재료, 기법에 앞서 현실과 공간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표현 매체가 된다.¹⁴⁾

<작품5>의 수도꼭지 변형물은 <작품6>, <작품7>의 욕조 변형물과 같이 설치 될 때와 <작품4>의 식탁과 싱크대의 결합물과 <작품8>의 주전자의 변형물과 함께 설치될 때 공간상황은 틀려진다. 욕조 변형물과 수도꼭지 변형물이 함께 있다면 그 공간 상황은 분명히 화장실은 연상시킬 것이다. 하지만, 수도꼭지 변형물이 주전자의 변형물이나 식탁과 싱크대의 결합물과 같이 설치되면 그건 부엌을 연상시키게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한 공간과 전혀 상관없는 욕조 변형물과 식탁과 싱크대의 결합물이 함께 설치된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현대예술은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몇몇의 천재적인 직감의 이해, 또는 소수 부르주아계층의 향유물로써의 기능에서 벗어나 대중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예술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예술철학의 측면에 있어서도 전통예술과 달리 '소통 가능성'이 중요시 되었고 미

13) Edward Lluice Smith, Art Today, (London: Phsidon Press), 1977, p.287

14) 이일, 현실 공간 그리고 공간의 현실화, 서울, 미술세계, 1987, 6월호

적 대상에 대한 수동적, 관조적인 자세를 규정하던 전통 미학에서 벗어나 예술가들의 내적표현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었다. 이러한 추이는 예술과 예술의 공유주체인 관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문제에 대한 비중을 더욱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다.

특히 과거의 평면회화나 조각처럼 작품을 걸거나 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전시 공간 및 공공장소 등의 여러 가지 공간 상황에 맞추어 작품을 설치하여 예술을 일상생활로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작품을 관객에게 일방적인 감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관객 자신과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

<작품1>, <작품4>, <작품7>에 사용된 거울과 모든 작품을 뒤덮고 있는 파일컷팅지는 관객을 작품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요소이다. 천에 달린 파일은 관객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흔들려 촉각적인 자극을 주며 거울을 통하여 주위환경에 어우러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본인이 작품에 사용한 파일컷팅지는 어두운 실내 공간에서 조명과 조화를 이뤄 시각적 자극을 주며, 명암에 의해 입체물과 공간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킨다. 또 그 천은 공간과 어우러져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상상속의 공간 체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것은 인간의 감정에 작용하여 공간을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개개인의 기억과 연관 지어 무한한 상상의 공간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또 갤러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상점이나 백화점등 더 열린 공간, 일상적인 공간 속으로 본인 작품이 표현되어 질 수 있으며, 그래서 관객들에게 더욱더 다가가 작품과 관객의 소통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설치미술은 가장 일상적으로 평범한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작품분석

일상적 사물의 기능 상실에 즐거움을 느낀 본인은 사물의 중요한 부분에 반짝이는 털이 달린 천을 붙임으로써 사용할 수 없는 물건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존 사물에 단순히 천을 붙이는 것이 기능상실이라는 목적에 다가가는데 한계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기존 사물의 형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불편하도록 변형시키고 서로 상관없는 두 물체를 결합시켰다. 일상의 관념에선 이런 사물들이 폐기되어야만 하지만 그 안에는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꿈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형된 사물들이 천에 씌워짐으로써 사물에 즐거움을 주게 되며, 초현실적인 공간을 연출하게 한다. 본인에게 초현실적 공간은 현실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심리적 치료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1>, <작품2>, <작품3>, <작품4>는 모두 두 가지 사물을 결합시켜 변형시킨 작품이다. <작품1>은 변기와 세면대가 결합되어 애매한 이미지를 낳았다. 변기는 화장실에 위치하는 사물로 더럽거나 불쾌한 사물로 간주된다. 특히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쾌감은 누구에게나 경험이 있을듯하다. 이렇게 변기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더러움이나 불쾌감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이런 불쾌감이 변기를 변형시키게 한 요인이며, 변기와 세면대의 결합은 배설 행위와 씻는 행위, 즉 서로 상반되는 사물의 결합으로 변기의 불쾌감은 없어지게 된다.

변기의 앉는 부분은 사용하기 힘들도록 변형되었으며,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변기를 연상케 하여, 일반적인 변기의 관념을 파괴하였다. 또 변기는 금속 반짝이 천으로 씌워짐으로 장식성이 가미되어 더욱더 우리의 통념을 깨게 한다. 세면대를 연상시키기 위해 사용된 거울은 관객의 보는 시

선에 따라 비춰주어 주위 환경을 창조하여 또 다른 공간을 연출하며 모든 공간을 포용하며 관객까지 포용하는 능력을 지녔다. 또 거울 자체로의 독특한 재질감과 천은 같이 빛을 발하여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세면대를 암시하는 수도꼭지와 변기 손잡이를 작품의 기본 바탕색과 대비되는 보색을 사용하여 더욱 돋보이게 한다.

<작품2>는 전화기와 샤워기가 결합된 이미지이다. 이 두 사물이 결합된 이유는 샤워 중에 전화벨이 울릴 때 곤혹스러움에 대한 해결 요소이다. 두 사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하지만, 딱딱한 손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샤워기의 손잡이가 전화기의 손잡이로 바뀌면서 샤워기의 일반적인 관념은 사라지게 된다.

<작품3>은 구두와 지팡이와 결합된 사물이다. 본인에게 구두는 강박관념을 주는 사물로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지팡이가 도움을 주는 상징적인 사물로 강박관념을 해소되게 한다. 두 사물의 결합은 현실세계에서 구두에 대한 불만족이 지팡이와 결합되면서 초현실적 사물로 표현되는 것이다. 사물의 표면을 싸고 있는 천은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된 것으로 사물을 더욱더 신비롭게 한다.

<작품4>는 식탁과 싱크대의 결합물이다. 식탁은 먹는 행위를 하는 사물이며 싱크대는 먹는 행위 후의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사물이다. 전자의 행위는 즐거움을 주지만, 후자의 행위는 번거로움을 주는 행위로 서로 다른 행위가 혼합되어 식탁도 싱크대도 아닌 애매한 사물로 탄생한다. 식탁을 연상시키는 의자엔 싱크대와 똑같은 흙은 혼합된 사물과 조화를 이뤄 통일감을 주며, 의자의 형태를 모호하게 한다. 거울은 주위환경을 포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보라색과 금색, 은색은 모두 다 서로 대비되는 색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의자도 싱크대와 식탁 결합물과 똑같은 색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준다.

<작품5>, <작품6>, <작품7>, <작품8>, <작품9>은 기존 사물의 형태를 변형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거의 기존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 본인은 이것들을 만들면서 각 사물이 주는 편리한 부분을 사용하기 불편하게 바꿔버리면서, 변형된 사물이 주는 황당함과 함께 즐거움을 주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품5>는 수도꼭지의 변형물이다. 하지만, 수도꼭지에선 물이 나올 수 없다. 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어릴 적 수도꼭지 구멍에 손가락으로 막으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을 떠올려 만든 작품이다. 이 사물은 실생활에 편리함은 줄 수 없지만, 관객에게 연상 작용을 일으키게 한다. 작품에 씌워진 파란색 천은 물을 연상시키게 하며, 수도꼭지 손잡이 핑크색과 파랑색은 각각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여 단조로움을 깨고 있다.

<작품6>과 <작품7>은 둘 다 욕조를 변형시킨 것이다. 두 욕조는 폭이 좁거나 바닥이 얇아 체형이 작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본인이 식욕과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보통체형을 가진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욕조로 전이 된 것이다.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마른체형을 미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기준 없는 기준을 따라가는 우리 모습을 비판하고자 이 작품을 만들었다. <작품6>의 욕조는 일반 욕조보다 폭을 좁게 하였고 보통 욕조의 옆에 달린 손잡이를 아래위로 붙임으로써 욕조의 손잡이로써 손잡이의 기능은 상실된다.

<작품7>의 욕조는 그 크기는 보통 욕조의 크기보다 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홈은 보통 욕조보다 얇고 좁아서 욕조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애매모호한 형태를 취한다. 또 홈 밑면에 붙은 거울은 더욱더 이 사물이 욕조로써 기능할 수 있을지 의심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거의 욕조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거울만 주위 공간을 비추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이 사물의 형태는 아주 단순화 되었고, 하늘색 천은 물을 연상시켜 옥조로서 최소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품8>은 주전자의 변형물로 주전자의 손잡이 위치를 주둥이와 일직선상에 놓이게 함으로써 주전자의 역할을 상실하게 하였고, <작품9>는 컵과 숟가락의 변형물로 주전자처럼 사물이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변형시켰다. 길모습은 둘 다 본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컵의 깊이감은 거의 사라져 버리고, 숟가락의 패인 홈은 평평하다. <작품8>과 <작품9>도 식욕과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이 음식과 관련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주전자와 컵은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하는 사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물이지만, 컵의 변형으로 인해 둘의 관계는 깨지게 된다. 이렇게 사물의 변형은 우리에게 사물과 사물 간에 또는 인간과 사물 간에 새로운 관계를 파괴하기도 제시하기도 한다.



【작품1】 What is it, 80×100×15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작품2】 What is it, 35×26×3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작품3】 What is it, 85×39×13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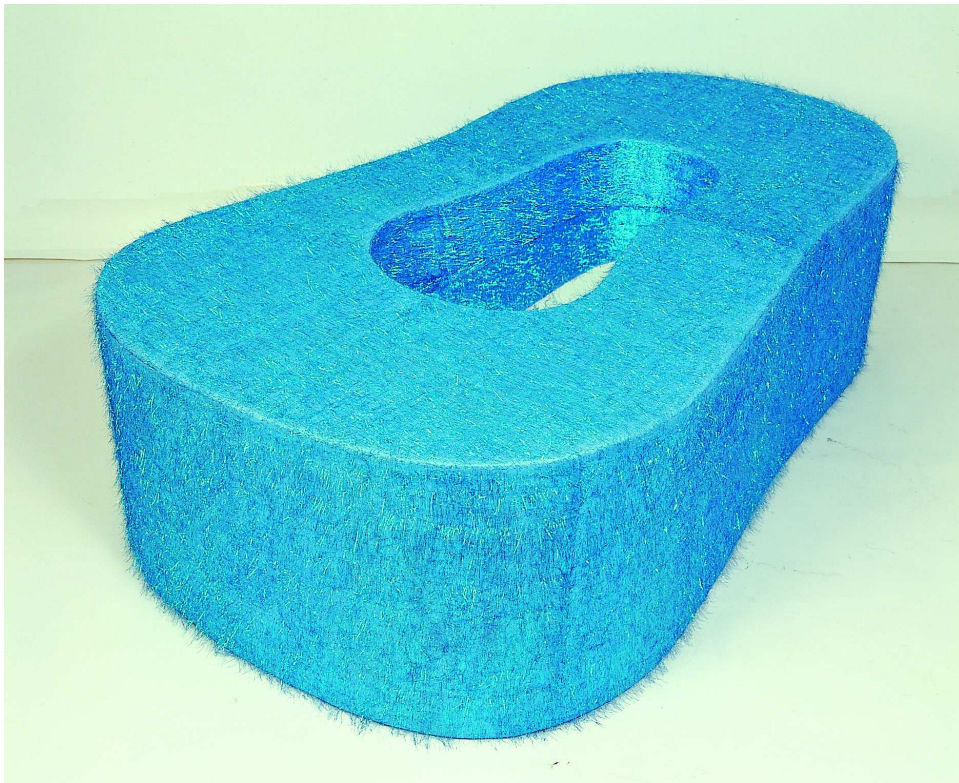
【작품4】 What is it, 100×60×7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The chair, 45×45×10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작품5】 The tap, 17×21×3.5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5



【작품6】 The bathtub, 130×50×8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작품7】 What is it, 200×130×50cm, 스티로폼, 파일커팅지, 2004



【작품8】 The kettle, 35×26×30cm, 스티로폼, 파일커탕지, 2004



【작품9】 The cup and the spoon, 12×9.5×12cm
16×3.6×1cm, 스티로폼, 파일커탕지, 2005



【작품10】 변기, 욕조, 수도꼭지, 화분, 샤워기 변형물이 설치된 공간



【작품11】 식탁과 의자, 주전자, 컵의 변형물이 설치된 공간

Ⅲ. 결 론

현대 사회는 과학의 발전으로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는 인간에게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그 변화는 인간에게 편리함 이외에 인간 소외와 상대적 빈곤 등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각 방식과 사유체제를 억압하여 자유로운 사고를 구속하게 하였다. 따라서 합리적 사고만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 억압받고 있는 사고를 자유롭게 하며 기존 사물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연구하고 열린 공간으로써 설치미술에 대해 알아보았다. 변형된 새로운 사물들은 우리를 무한한 상상의 세계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매체의 다양성으로 열려진 표현방식으로 인해 단순히 작품이 전시 공간 안에 놓이기 보다는 작품에 의한 공간이 활용되고 그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써 관객에게 미술의 거리감을 좁혀 작품과 관객과의 소통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변형된 사물에 씌워진 파일컷팅지는 본인에게 현실세계의 고통에서 치유의 욕구에 의해 현실의 억압에 대해 꿈과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여, 파일컷팅지의 선택은 본인에게 필요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작업함에 있어서 변형된 사물과 파일컷팅지는 서로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변형된 사물들이 파일컷팅지의 효과에 가려져 그 의미 전달에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변형된 사물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식적 효과나 요소를 찾고, 스티로폼이나 부드러운 재료가 갖는 영구성의 한계에 대체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본인이 작업해감에 있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참 고 도 판



<도판1> 메레 오펜하임, 모피로 된 찻잔,
인조모피, 혼합매체, 1936



<도판2>살바도르 달리, 바닷가재 전화기,
플라스틱과채색된클래스터, 혼합매체,
17.3×33×17.8cm, 1936



<도판3> 커트 셀리그만, 특별한 가구, 혼합매체, 1938



<도판5> 클래스 올덴버그, <‘유령’ 드럼세트>, 비닐, 케이폭 슝, 형겔, 1972



<도판6> 클래스 올덴버그, <침실>, 혼합매체, 가변크기, 1963



<도판8> 야요이 쿠사마, <Polka Dots>, 혼합매체, 가변크기, 2003

참 고 문 헌

- 김경중, 사인, 심볼, 문양, 미진사, 1985.
- 송미숙, 폴카점으로 뒤덮인 무한 황홀경, 월간미술, 2003, 3월호.
- 신현숙, 초현실주의: 예술 각 분야에 나타난 모험정신과 그 한국적 수용,
서울: 동아출판사, 1992.
- 위성웅, 설치미술에 있어서 공간과 오브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1997
- 이일, 현실 공간 그리고 공간의 현실화, 서울, 미술세계, 87년 6월호.
- 홍명섭, 전환기의 현대미술, 도서출판 숲, 1991.
- Clment Greenberg, Influence of Matisse, Art International,(Nov,1973).
- Edward Lluice Smith, Art Today, (London: Phsidon Press), 1977.
- 콘래드 피들러·야마자키, 예술활동의 근원, 이병용 편역, 현대미학사,
1997.
- K. 해리스, 현대미술-그 철학의 의미-, 최연희, 오병남 역, 서광사, 1988.
- 모홀나기, 초현실주의 역사, 민희식 역, 고려원, 1985.
- 피오나 브래들리, 초현실주의, 김금미 역, 현대미술운동총서, 2003.
- 루시 R. 리파드, 팝아트, 전경희 역, 미진사, 1985.
-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역, 도서출판 예경, 1997..
- S.k Langer, 예술이란 무엇인가, 박용숙 역, 문예출판사, 1984

A Study on New Image by Deformation of Objects

-Centered on the Researcher's Works-

Park Jung Hwa

Major in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a master's thesis, this study, for the researcher's works produced between 2003 and 2005, discusses the content of expression that was intended by the researcher in developing those works as well as the procedure of production.

The researcher desires to be free from a prejudice or a fixed idea in producing a work because it prevents human beings from thinking freely and confine them to a certain frame as a by-product of reasonable thinking. The very way to get out of such frame is to deny existing values through free imagination and create a totally new image which does not exist in the real world.

Usual things were combined or deformed into a vague form in the researcher's works under the theme of 'What is it?' with materials that could be easily obtained in daily life. The deformed thing was made by unconsciousness and the desire of dream, where a desire that has not been met in the real world was expressed through imagination or a dream. A decorative effect was given to an object to make viewers happy by covering a shining file cutting paper on such deformed thing, and the decorative effect made the thing lose

its unique function. We may hardly experience this kind of thing in the actual world and it is unnecessary and must be discarded in our common sense. However, it contains mystery and dream,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real world.

The researcher's works have the meaning of completion as soon as they are displayed, and are created into a new space by field situation such as exhibition hall or public space, instead of existing ways of display including hanging or arranging a plane picture or a sculpture.

Such type of display draws out art into daily life and suggests a new way of communication to viewers that works are not one-sidedly appreciated by viewers but positively intervene in life.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s attempted to look into imagination, the basis of the researcher's working activity, and a process that a fixed idea is broken in a work through such imagination.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ression of a pop art and a sur-realistic object and deformation of the researcher's works, and mad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ental therapy from the Yayoi Kusama's works and image from the shining file cutting paper used in the researcher's works. Based on these, the researcher examined the content of her works and studied formative dimensions of a range of displaying method through deformation of a thing and the expression.